

# ‘편집위원회제’ 어떻게 운영되나

## 기획업무의 효율성 높아...문화와 산업의 적절한 조화가 관건

출판등록 자유화 조치 이후 출판사 수가 급증하면서 달아오른 출판계의 과열경쟁은 중복출판과 같은 비정상적 출판행태를 만연시켰고, 이런 알파한 상흔의 결과는 기획력 부재라는 출판계 공통의 고민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출판시장을 주도하기는커녕 시류를 좇아가기에 겨를이 없었다”는 질책 속에서 요즘 출판계가 체질개선택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편집·기획위원회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서 취약점이었던 기획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출판이 더욱 전문화됨에 따라 ‘여관집 반찬’식의 실속없는 출판이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많은 출판사들의 참여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특정분야의 전문가들로 그룹을 구성해 출판방향을 설정하고, 진행에 따르는 저자의 선정·섭외는 물론 원고검토 작업 등을 맡김으로써 출판기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이 제도는, 비교적 탄탄한 관리능력과 조직을 지닌 전집물 출판사들이 해왔는데, 최근들어서는 단행본 출판사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경쟁사가 부지기수로 늘어난 문학류를 내는 출판사와 사회과학 출판사, 그리고 전문성의 심화가 요구되는 전문출판사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편집위원회제는 90년대 들어 출발한 신생사들의 가세로 폭넓게 수용될 전망이다. 단행본 출판사들이 편집위원회제를 실시하는 까닭은 몇가지 이유로 설명된다는 게 출판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우선 경쟁사들의 증가로 기획이 고갈되고, 필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며, 단행본 출판사들 대부분의 편집장 연령이 대체로 낮아지면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기획력 약화가 심해졌으며, 편집자가 기획에 전념할 수 없는 출판여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편집위원회제의 장점은 이같은 출판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며, 무엇보다 출판이 사주의 개인적 성향이 표면화되기 쉬운 사업이란 점에서 볼때 편집위원회제는 사주의 독단을 일정부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 계간지 출판사들 앞장서

문학과 지성사(대표 김병익), 창작과 비평사(대표 김운수)는 단행본 출판사로서 편집위

원제를 일찌감치 시작해 모범사례로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출판사들. 문지의 경우 계간지 「문학과 지성」을 발행했던 네명의 동인들이 각기 일정한 자금을 출자, 경영에도 참여하는 독특한 회사로 잡지편집과 도서발행에 모두 관여해왔다. 즉 출판을 원하는 필자의 원고가 접수되면 동인 가운데 한명이 원고를 검토해 매주 열리는 편집회의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며 출판여부는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또 이들은 어떤 필자의 원고나 번역서를 출간하지는 제의를 하고 이를 심의해 찬반의견을 가린다.

경영참여뿐 아니라 편집의 전권을 갖는 문지의 편집위원들은 17년간의 운영을 통해 출판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예컨대 수필집·아동도서·번역소설 등을 출판하지 않고 자비출판을 사양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잡지 「문학과 사회」의 기획은 문사동인들이, 출판기획은 문지동인들이 나눠 주1회의 편집회의를 통해 한다고 말하는 편집장 채호기씨에 따르면, “매년초 편집위원들의 합동간담회에서 지난해의 실적이 검토되고, 일년간의 간행계획이 세워져 출판방향이 확실해진다”고.

계간지와 단행본의 기획을 분담하는 문지와 달리 계간지 편집위원들이 출판편집을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창작과 비평사는 1주일 단위의 편집회의와 3개월마다 열리는 전체모임을 정례화하고 있다. 창비의 편집위원회제는 업무에 있어서는 문지와 다를 바 없지만 구성상의 변별점이 있다. 편집인(백낙청씨)과 편집자문위원(강만길씨 외 7명) 편집위원(염무웅씨 외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형식·임형택·최원식씨 등이 ‘창비아동문고’의 기획을 전담하는 것처럼 분야별 소위원회를 갖춘 것이 특징적이다.

전문분야의 원고를 접한 편집자가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자문을 구해 출판 가능한 원고를 선별하는 편집자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집위원회제의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는 김이구씨(창비 편집부)는, “기획이 결정됐을 때 편집자가 편집위원의 도움으로 까다로운 원고청탁을 쉽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인다. 또 기획원고가 아닌 외부로부터 수시로 전해지는 출판의뢰 원고의 검토작업 역시 편집위원들의 협조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출판사들이 편집위원을 위촉하면서 공통적

### 편집위원회제는 출판의 과학화와

### 전문화를 가능케 하는

### 장점을 지닌 제도로, 전문출판사는

### 물론 신생사들의 대폭적인

### 수용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다.

### 사주의 성향이 폭넓게

### 반영되는 출판의 특성에 비할 때

### 이 제도의 성패여부는

### ‘문화’와 ‘산업’의 균형을 살리는

### 운영의 묘에 달려 있다.

으로 기준삼는 것은, 그 분야에서의 활동경력 과 명성 등이다. 그러나 편집위원의 자격요건이 되는 이 점이 오히려 불편을 유발하기도 한다. 시간에 쫓기는 편집위원들이 자주 편집회의를 거르게 되면 기획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없고, 구체적인 업무진행에 동참키 어렵게 된다. 한편 유명도만을 고려해 편집위원을 구성하면, 연령층이 높아져 기획의 과감성이 결여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결국 적절한 시기의 재구성인 출판기획의 참신성을 지속시켜준다는 얘기가.

편집위원회제의 선두주자격인 문지·창비가 갖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계간지를 발행한다는 점이다. 바꿔말해 계간지 발행이 편집위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문학 계간지를 발행하는 다른 출판사들의 경우를 빌어 설명된다.

「사회와 사상」을 발간했고, 현재는 「한길문학」을 내는 한길사(대표 김연호) 역시 잡지 편집위원들이 도서기획에 참여한다. 문학평론가 김재용씨를 비롯해 임규찬·김운태씨가 문학관련 도서출판에 사안별로 관여하는데, 문학 이외 분야의 기획에는 따로이 편집위원을 구성하기도 한다. 「한국사 강좌」(미간)를 예로 들면 시대별로 편집위원을 위촉해 모두 12명의 전문가들이 이 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고’의 기획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시리즈일 경우 목차구성과 필자교섭을 책임지는 편집위원들에 대한 대우는 편집회의에 참석했을 때 사례비·거마비 명목으로 치러진다. 편집위원에 대한 사례는 이외에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개 20~50여만원이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에는 일부 신생출판사들이 ‘인세식’의 지불방법을 쓰고 있는데, 단행본의 경우 우선 기획료를 주고 책의 판매량을 계산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급한다.

### 출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

계간지 발행을 겸한 문학물 출판사들이 경쟁사의 증가와 잡지 편집위원을 활용해 단행본 출판에 편집위원제를 시도했다면, 전문도서 출판사들의 발빠른 시행은 출판의 전문화 추세 때문일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서적을 펴내는 이들은 출판사의 규모와 출판성향에 따라 개성있는 편집위원제를 운용한다.

지난 89년 출발한 도서출판 눈빛(대표 이규상)은 사진집과 사진이론서를 펴내는 전문출판사로, 창립과 동시에 이영준·정진국씨를 편집위원으로 위임해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도서의 기획에 참여토록 했다. 기획은 물론 책속에 들어가는 사진을 일일이 선정하는 작업도 편집위원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외서의 번역도 편집위원이 직접한다.

“출판사와 공동부담해 외국 사진계를 둘러보고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동구권 여러나라를 둘러보았다. 기획에 참여한다는 일이 단순히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좋은 기획을 위해 출판사와 편집위원의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영준씨의 말.

눈빛은 출판사의 규모를 고려해 현재 한명뿐인 편집위원을 증원하지 않고, 접촉빈도를 늘려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편집위원이 상근하다시피 하면서 전기회에 참여하는 경우와 전혀 다른 기획별 편집위원제를 실시하는 곳이 철학서적 전문출판사인 서광사(대표 김신혁)다.

‘서광철학강의’ ‘박사학위논문시리즈’를 기획했던 87년,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한 4~7명의 편집위원들에게 기획을 맡겼던 서광사는, 기획 초기단계에서 필자선정 정도를 자문하는 부분적 편집위원제를 시행하는데, 실무진행에서 생기는 변경사항은 편집위원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논의하는 형식을 취한다.

89년 창간된 계간 「현대소설」의 발행과 함께 소설·소설이론서만을 출판하는 현대소설사(대표 박길부)는 소설가인 주간 김원우씨와



왼쪽부터 이규상씨(대표) 구와버라 시세이씨(사진가) 이경모씨(사진가) 이영준씨(편집위원) 최돈환씨(영업부장). 눈빛출판사의 편집회의 직전.

김석희·이원섭·정호웅·장경렬씨가 주1회씩 모여 편집회의를 갖는다. 5명의 편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책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담론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는, 다른 출판사들의 기획을 분석하기도 하며 편집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접명한 작품들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주간 김원우씨는 “외부인과의 출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편집위원들이 분야를 나눠 심사한다”면서, “우리의 경우 기획과 편집이 경영주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편집위원들과 사주와의 마찰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힌다.

### 신생사들의 적극참여로 확산돼

전문서적 출판사들의 편집위원제가 출판문화라는 출판계의 흐름 속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사회과학 출판사들의 편집위원제는 운동으로서의 출판이라는 그들의 대의명분에 따라 다수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출판사가 어떤 형태로든 편집위원제를 시행했거나, 시행한다고 보는 출판계의 견해도 그런 이유에서다.

출판업무가 이미 방대한 지식을 요하는 산업이 되었고 따라서 사장이나 편집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편집위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편집위원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백산서당(대표 김철미)의 기획위원은 실장 정철영씨를 비롯해 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인 사회과학 출판사

백산서당의 기획회의는 여느 출판사들과 다르다. 편집위원과 사장, 그리고 편집장이 참석하는 다른 출판사들의 편집회의와 달리 편집부 직원 모두가 자리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물론 책의 출판여부는 이들을 포함한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출판사의 기획위원들은 편집기획뿐 아니라 광고 등에도 깊이 관여한다.

편집위원의 참여 폭을 넓히고 있는 백산서당과는 정반대로 그동안 실시해온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사회과학 출판사 풀빛(대표 홍석)의 움직임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잡지기획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의 몫과 인간관계를 통한 필자개발 등의 이점은 인정하지만, 출판 편집위원제는 출판물의 성패여부에 대한 책임이 기획에 관계하지 않은 실무진들에게 되돌려지는 폐단이 있어 앞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게 풀빛출판사의 입장이다. 편집위원제가 실시되면서 편집인력들의 불만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경력 6년의 한 편집자는 “우리 출판사 구조에서 편집자가 기획과 편집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그러나 자기전망을 상실한 채 교정이나 교열과 같은 단순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한다. 이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부인력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밖에도 사회과학 출판사들의 편집위원제가 붕괴되는 요인은 몇가지가 더 된다. 첫째

편집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세판단의 이견에서 반목이 생길 수 있고, 둘째 운동이 주된 활동인 이들이 갖는 출판물에 대한 애정이 별로 깊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과학 출판계가 침체되면서 기존의 편집위원들만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고충도 있다.

사회과학 출판사들의 편집위원제가 다소 흔들리면서 일종의 ‘위기’로 감지된다면, 신생출판사들의 편집위원제는 일종의 ‘봄’을 예고한다. 현재 속속 생겨나는 신생출판사들이 이 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창립 초기의 불분명한 출판방향을 결정하는 데 이로울 뿐더러 업무진행의 차질을 극소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문학평론가 임우기씨가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도서출판 숲(대표 오원진)은 91년에 첫발을 내디딘 신생사임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기획물을 선보여 눈길을 끄는 출판사. 현재 4권까지 출판된 ‘입장총서’와 ‘대중문화이론총서’ ‘한국의 작가총서’ ‘페미니즘총서’ 등을 기획한 숲출판사의 비결은 기획을 맡은 편집위원들의 노력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의 지적이다. ‘입장총서’는 정과리·김진석씨가 ‘대중문화총서’는 임재철·채규진·육상효씨 등이 기획에 참여했다고 밝힌 임우기씨는, “인적자원이 모자라 출판계가 실시하고 있는 편집위원제는, 오히려 과학적 출판을 유도했으며 출판사와 저자간의 연대감을 증진시켰다”고 말한다.

편집위원의 인적구성에서 색다른 면을 보여주는 신생출판사 전원(대표 오영호)은 사장과 편집장, 그리고 6명의 편집위원들 모두가 대학동문이란 점에서 특이하다. 그러나 이들의 특성은 학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대의 젊은 층이란 데 있다.

출판기획의 효율성을 높이는 편집위원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널리 운용된다. 일본의 경우 문학물을 내는 출판사들이 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출판사 외부고문(Outside Readers)이란 명칭으로 불리며 실시되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 출판계도 「사상계」를 시작으로 을유문화사와 친구문화사가 편집위원제를 통해 비중있는 기획물들을 출판한 바 있다.

출판의 과학화는 물론 편집위원 개인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

제점도 없진 않다. 편집위원들의 인맥과 학맥을 활용해 필자를 동원한다는 장점에 반해 자칫 파벌을 형성해 다양한 필자를 기용할 수 없게 되거나 신진들의 발굴에 소홀하리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 매너리즘에 빠져 감각의 둔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출판사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엇비슷한 기획물이 생겨날 위험부담도 있다.

### 사주의 독단성 막는 방지책

“편집위원이 된 일부 전문가들이 관행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기여도에 마땅한 경제적 요구를 게을리했던 것 같다. 출판발전에 도움이 되는 편집위원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실한 기여에 따르는 경제적 대가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출판사와 편집위원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끈이 될 것이다.”

정진국씨(열화당 기획실장)의 이같은 지적은 편집위원제가 일종의 간판 역할로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편집자가 사주와의 수직관계에 놓여 탄력있는 기획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집위원제는 사주의 자의를 억제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문제는 출판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편집위원과, 상업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사주간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편집위원들의 성취감도 어느정도 만족시켜 주면서, 한편으로 출판사의 경영에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편집위원제의 성패여부를 가능짓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출판이 문화와 산업이라는 양면에 무게중심이 함께 실려있는 독특한 구조를 속성으로 한다면 사주로 하여금 평형각각을 잃지 않게 해줄 편집위원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없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최태원 기자